

## < 더 깊은 묵상 >

### 두 의대생의 착각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으스대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런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학생(좀 까불거리는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화..화장실이 어디죠?"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웃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십니다.

출처 -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W.B 프리먼